

## 北漢山 國立公園의 植物相

李 永 魯  
梨花女大 自然大 生物學科

北漢山과 道峯山은 韓半島의 中心部에 자리잡고 있으며 北漢山국립공원에 속하고 있다.

산의 높이는 700余m이나 山勢가 수려하여 오래前부터 住民들이 즐겨찾는곳이고 特히 李朝五百年의 王都의 主峯이 되어왔던것이다. 따라서 歷史的인 古刹과 성터가 많이 散在하여있어 漢陽朝鮮의 王宮과 더불어 貴重한 文化財로서 國民의 生活터전으로 保存되어야 할 곳이다.

이 北漢山國立公園 區域內에는 많은 溫帶 植物種類가 나고 있다. 李朝 때에는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산에 나는 나무를 하나 배던 곤장 百대를 맞아야했고 特히 官이 배었을 때는 官職을 삭탈당하는 벌을 받았던것이였다. 李朝時代의 地圖 漢城圖를 보면 온산이 소나무숲으로 덮여 있었다는것을 알수가 있다. 하기야 중앙청앞에서 안국동에 이르는 길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고개 卽 松峴이라고 불렀던것이다. 解放 바로 뒤만해도 仁王山, 駱山, 三清洞, 세검동, 성북동, 정릉과 남산 우이동과 도봉동등에는 소나무숲으로 덮여있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앞 명륜동과 혜화동 사이의 언덕에는 앵두나무밭이 있었고 세검동에는 능금나무밭이 있어 살구나무와 들배와 함께 토속적인 果實이였다. 그러나 都市擴張 人口增加와 서울의 近代化는 옛자연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버리고 外國種의 植物들이 都市 한복판에서 山地까지 占領해가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다. 解放後 40여년의 自然의 變化는 아마 過去 몇百年동안에 이루어졌던 變化보다도 더 큰 것임을 알수가 있다.

이 北漢山地域에서 산철쭉이 *Lévillé*에 의하여 1908년에 발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學名의 種을 나타내는 形容詞에 山名인 北漢山이 들어있다. 卽 *Rhododendron paukhanense* Lévl.로 되어있다. 한편, 이 산철쭉을 日本 學者 中井猛之進은

日本에 나는 *Rhododendron yedoense* Max. var. *poukhanense* Nakai라고 1920년에 했던 것이다.

1921년 中井는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를 北漢山에서 發見했다. 산개나리는 개나리 *F. koreana* Nakai에 比하면 花冠이 가늘게 갈라지고 엷은것이 特色이며 암술이 길게나와 있다. 그리고 數年前에 北漢山麓 孝子里에서 著者에 依하여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가 나는것이 확인되었다. 元來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1919년에 中井猛之進에 依하여 忠淸北道 鎭川郡 龍亭里에서 최초로 發表된 新屬인 新種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域에서 1905년에 서울돌쩌귀 *Aconitum seoulense* Nakai, 1914년에는 서울귀룽나무 *Prunus padus* var. *seoulensis* (Lévl.) Nakai, 1978년에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을, 1917년에 *Juniperus seoulensis* Nakai가 報告되고 있다.

그리고 1960년에 筆者는 道峯山 中腹에서 노랑할미꽃 *Pulsatilla cernua* var. *koreana* for. *flana* Y. Lee를 發見했던 것이다.

北漢山國立公園 地域中 도봉산의 식물조사를 도리켜 보면 (鄭 1955) 285種이 알려졌고 또한 1956년에 조사한것에 傳하면 (李) 135科 336속 593種 (재배 식물 포함)이 알려졌다. 한편 1981년에 筆者의 조사에 依하면 98科 303속 508종 (재배종 除外)이며 그中 羊齒植物이 9科 16속 21種, 裸子植物이 3科 5속 8種, 被子植物이 86科 282속 478종이었다. 그리고 被子植物中 双子葉植物은 75科 219속 381種이었으며 單子葉植物은 11科 63속 98種이었고 双子葉植物中 菊花科는 55種 장미科는 52種이었다. 單子葉植物에서는 禾本科 植物이 35種, 百合科 植物이 25種으로 比較的 풍부했다.

北漢山 國立公園 地域內的 官束植物種類는 600여종이 넘을 것으로 思慮된다. 큰키나무로는 소나무 *Pinus densiflora*, 갈참나무 *Quercus alina*, 신갈나무 *Q. mongolica*, 졸참나무 *Q. serrata*, 당단풍 *Acer pseudo-sieboldianum*, 북나무 *Rhus javanica*, 개웃나무 *R. trichocarpa*, 굴참나무 *Q. variabilis*, 밤나무

*Castanea crenata*, 개벚나무 *Prunus leveilleana*, 물푸레나무 *Fraxinus lynchophylla*,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귀룽나무 *Prunus padus* var. *seoulensis* 등을 들 수가 있다.

떨기나무로는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산철쭉 *R. yedoense* var. *poukhanense*, 철쭉나무 *R. schlipenbachii*, 참싸리 *Lespedeza bicolor*, 조록싸리 *L. maximowiczii*,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병꽃나무 *Weigela florida*, 말발도피 *Deutzia parviflora* 개암나무 *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erg) Siebold 등이 있다.

땅을 덮고 있는 主要植物로는 禾本科植物인 억새 *Miscanthus sinensis*, 잔디 *Zoysia japonica*, 김의털 *Festuca ovina*, 큰기름새 *Spodiopogon sibirica*, 새풀 *Arundinella hirta*, 실새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등이 있고 사초科植物인 그늘사초 *Carex lanceolata* 청사초 *C. breviculmis*, 삿갓사초 *C. dispalata*, 대사초 *C. sclerostica* 와 百畝科植物인 애기나리 *Disporum amilacinum* 등을 들 수가 있다.

解放直後(1946)만 해도 北漢山一帶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적었으며 山 밑에는 보리밭으로 되어있었고 山川溪谷에는 집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산길도 뚜렷하지 않기에 풀밭을 헤치고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안가서 溪谷까지 집이 들어서고 등산로는 확충되어 溪谷을 中心으로 하는 自然은 극심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結果적으로 溪谷에 나 있던 소나무, 느티나무, 병꽃나무, 진달래, 참싸리, 갯버들, 태백제비꽃, 돌단풍, 처녀치마, 현호색, 노랑피불주머니, 뽕꼭채, 할미꽃 등의 수가 격감된 상태이다. 그리고 끈끈이주걱 등은 아주 작은 집단만이 제한된 곳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산록의 溪谷 물에 자라던 차축조 *Chara*는 멸종하고 만졌갈다.

그런가 하면 이 溪谷에 北漢山 地域 土產植物이 아닌 아카시아나무 *Robinia*

*pseudoacacia*, 미국싸리, 네군도단풍,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와 은수원사시 나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勿論 망초, 개망초, 큰달맞이꽃과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등도 浸入하여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 參 考 文 獻

李永魯, 1981. 道峯山一帶의 植物資源에 關한 研究. 自然保存研究報告書 第3輯, 5~23.